

雲門

불기 2563년

여름호

통권 제149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떨어지는 땀방울, 온 도량을 적시네. / 대교과 우연
- ☼ 아무리 더워도 회암경 독송하는 소리에 이 마음 시원해지네~. / 대교과 진오
- ☼ 천진불 어린이들의 웃음소리, 방방곡곡 울려 퍼져라. 여름불교학교 파이팅!!! / 대교과 선주
- ☼ 이 공양 받으시는 모든 대중들이 여름 한 침 건강하시길, 건강하게 소임 회향하길 발원합니다. / 사교과 정현
- ☼ 온몸이 땀에 젖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울려하고 신나게 이 계절 보내봅시다. / 사교과 지엄
- ☼ 넓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태양의 뜨거운 열기와 바람의 시원함을 온전히 그대로 느끼는 여름철을 살아가겠습니다. / 사교과 여묵
- ☼ 웅광로에서 녹지도 못 하는 쇠는 어디에 쓰이려 이 번뇌, 여름 태양 아래 한 티끌도 없이 녹여버리라……. / 사집과 영림
- ☼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풀 뽕고 상추 가꾸는 손길, 대중스님들 공양하실 생각하니 더욱 정성스러워집니다. 원두반이라 행복합니다. / 사집과 법건
- ☼ 한 번은 달귀져야 단단해진다. / 사집과 진정
- ☼ 여름이 오는 것은 더운 날 진땀 뻘뻘 흘리듯 우리네 마음속 무명업식 날리기 위함이에요~~. / 사미니과 현밀
- ☼ 여름의 푸르름이 도반스님 웃는 얼굴처럼 밝고 좋습니다. / 사미니과 성료

雲門

목차

- | | | |
|----|----------------|--|
| 02 | 초가산 운문사 | 구름문을 펼쳐다 |
| 04 | 즉흥전 | 즉사이진(卽事而眞)의 진찰회眞機海 평성 |
| 06 |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 자기반조(自己返照) 일진 |
| 08 | 교수논단 | 불살생계를 통해서 본 불교의 생명윤리 ① 찬광 |
| 13 | 계 | 초발심의 빛 지엄 |
| 14 | 학인논단 | 『禪家龜鏡』을 통해 본 신수의 혜능의 계승 혜중 |
| 18 | 선배 답방 | 기도는 영원한 나의 도반
- 제20회 묘수 스님 답방기 - 향광 |
| 22 | 외부기고 | 내 마음의 빛을 찾아서 김성삼 |
| 25 | 깨달음으로 가는 길 | 산인 줄도 모르면서 권광부 |
| 26 | 특별집문 | 당당한 은행나무, 소나무 아래에서 圓願을 세우라
- 범정 스님 생전 운문사 방문 2 - 종4. 해주 |
| 32 | 운문만행 | 근 포교는 불교의 미래다 덕현 |
| 36 | 사카디타 보고서 |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호근 |
| 40 | 운문, 운문인 |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 부처 보기 편집부 |
| 42 | 수행의 두레박 하나 | 무상(無常)함에 대하여 도현上 |
| 44 | 수행의 두레박 둘 | 전도공상(顚倒夢想) 선택 |
| 46 | 수행의 두레박 셋 | 날마다 좋은 날 도현下 |
| 48 | 치혜집문 | 'Freedom is not free' 로운 |
| 50 | 이 한 권의 책 | 지금, 여기가 깨달음에 이르는 자신의 도량 범일 |
| 52 | 운문논평 | '입 안의 도끼'를 거두어 들이는 방법 편집부 |
| 54 | 운문소식 | |
| 55 | 등불 | 운문사 사천왕 석주 편집부 |



즉사이진 卽事而眞의 진참회眞懺悔

명성 / 운문사 회주



승가에는 포살布薩과 자자自恣가 있습니다. 며칠 전 대웅전에서 여름안거 포살이 있었는데 ‘포살’이란 보름마다 계본戒本을 읽고 계戒를 범한 스님들은 대중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여 참회를 얻는 것입니다. 또 ‘자자’란 매년 여름 안거 최종일에 스님들이 서로 모여 각자가 스스로 참회하는 방법입니다. 포살이 스스로의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참회라면, 자자는 타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참회하는 것입니다. 운문사에서는 이 자자를 매 월 방학 하루 전날 합니다.

운문사는 대중이 많이 살 때는 270여 명, 지금은 약 150여 명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지어목多枝於木에 무일무풍無日無風이라고 했던가요? 예나 지금이나 세울이라든지 학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스님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중공사를 통해 그 잘못에 대해 본인이 직접 대중에게 고백하고 참회를 구하게 합니다.

참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이요, 회개는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할 때 잘못된 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그 잘못에 대하여는 대중의 공의에 의해 할당한 소임을 줍니다. 그렇다고 잘못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임을 사는 중에 인욕과 악속을 철저히 행하는 등의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참회를 받아들이는 이들도 진실하게 100% 용서해야 한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희인스님들은 어떻게 100% 용서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저는 99명의 목숨을 빼앗은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엄격히 계율을 지키고 안내하여 결국 아라한과를 성취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 줍니다. 또 유마 거사 일화도 있죠.

부처님 당시 두 비구가 있었는데, 한 비구는 음계를, 한 비구는 살생계를 범하고 맙니다. 두렵고 괴로운 마음에 지체제일인 우바리 존자에게 가서 죄를 참회하니 ‘불통참회不通懺悔’라고 합니다. 유마 거사가 이 광경을 보고 죄를 가져와 내어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비구는 깨닫게 됩니다.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음을요. 이에 유마 거사는 이미 참회를 마쳤다고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중도가에서는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어떤 두 비구 음행과 살생 저지르니 우바리의 반딧불은 죄의 매듭을 더하였고, 유마 대사 단박에 의심을 없애줌이여, 밝나는 해가 서리 눈 녹임과 같도다.(有二比丘犯淫殺 波離螢光增罪結 維摩大士頓除疑 還同赫日消霜雪)”

저는 이 뜻을 왕왕 거울로 설명합니다.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자기얼굴이 보이지만 거울을 치워버리면 자신의 얼굴이 없어지지요. 거울은 바로 자신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세워놓은 아상의 비유입니다. 이 참회하는 자와 참회 받는 자인 아我와 아소我所의 거울을 세우지 않으면 죄도, 참회하는 이도, 참회 받는 이도 없는데 용서하지 못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미소리에 숲이 더욱 고요해지고(선조림유정蟬噪林愈靜) 새소리에 산이 더욱 그속해지는(조명산경유鳥鳴山更幽) 여름날, 혹여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 대중은 참회를 구하는 사람도 100%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100% 용서하는 매사에 진실한 ‘즉사이진即事而眞’의 불이不二의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자기반조自己返照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강주

어느 날 아침 청소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인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 출타를 하게 되어 각 방의 강사스님 방마다 인사를 다니던 중 나와는 뜨락에서 만났죠.

여러 대중과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학인 스님들의 출타문제, 특히 몸 건강상의 문제로 학기 중에 치료 차 출타하는 일은 제일 큰 일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나의 입장에서는 늘 무거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병원에 보내는 인사 중에,

"진짜 아픈 나는 누굴까? 그 아픈 나를 상대방처럼 내 앞에 두고 한 번 들여다봅시다. 아픈 몸에 휘둘리지 말고 아픔을 한 번 객관화 시켜서 들여다보면 좀 기뻐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사어록을 외우듯 열심히 말했더니,

"스님! 저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병원 시설도 의술도 좋으니까……."

담담하게 걸어가는 학인스님의 단아한 뒷모습을 보면서 잠시 학인스님에게 무엇이 되어 주어 야만 한다는 생각을 한 나 자신이 매우 삭스럽고 미숙한 기분이 되어 꿀꿀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흐드러지게 피었던 아팝나무 꽃, 아카시아 꽃, 질레꽃까지 다 떨어졌지만, 종각 앞 장미는 화려하게 피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편 것은 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탄생이 시작 되는 찬란함이 찾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의 젊지 않은 육신의 나이도 값지게 여겨집니다. 실렘과 호기심이 청춘의 축복이듯이 들뜨지 않는 평인함은 나이 들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비장하여 치열했으나 지금은 관조觀照하여 여유로워졌습니다. 고되긴 했어도 지금 여기에서 아쉬울 것도, 서러울 것도 없이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여겨지는 기억이 많습니다.

그때는 나이 들면 사는 게 시들해질 줄 알았는데 꾀 부리지 않고 성심껏 인내하며 살아보니, 봄의 꽃처럼, 여름의 풍요로움처럼, 가을과 겨울의 스산함까지도 그것은 그것대로 다 찬란하고 아름다운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한, 아플 것도 초라해질 것도 없다는 사실을 병원 치료 떠나는 학인스님의 담담한 뒷모습에서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남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몇 갑절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압니다. 먼저 밖으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밖으로 실컷 털어내 버리면 더욱 갈등만 붙어날 뿐입니다.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오히려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이 있을 뿐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학인스님에게 아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말했듯이 마음의 갈등의 정제와 마주 앉아 찬찬히 또 반조返照해 볼 때, 비로소 마음은 열리고 갈등은 해소될 것임을 압니다. ☸

불살생계를 통해서 본 불교의 생명윤리 ①

진광 / 윤문사승가대학 학장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연기론적 측면의 불교적 생명관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4.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
5. 나오는 말

생명체들 사이의 공생과 공존의 지혜를 찾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 형성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생명공동체가 생태계를 무대로 해서 전개된다고 생각하면, 생태계 안에서 각각의 사물과 생명체가 제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존속하고 생필하는 권리의 문제나 생물 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명의 문제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윤리, 곧 생명윤리의 과제이다.

불교윤리의 근간은 계戒(Sīla)와 율律(Vinaya)로 대변된다. 계가 온전한 인간의 회귀를 도모하는 나침반이라면, 율은 공동생활을 위한 행위규범이다. 이 가운데 출가와 계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바로 오계戒이다. 특히 이 오계 가운데 불살생계의 덕목은 현대 산업사회의 생태계 파괴, 전쟁, 생명경시, 식량문제, 자원고갈 등에 대한 문제해결의 근원적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불교윤리의 근본 목표는 모든 생명이 함께 행복해지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교적 생명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불살생계를 통하여 본 불교생명윤리와 불살생계의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살생계의 현대적 실천은 상생하는 인간과 생태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들어가는 말

이 세상에 생명만큼 귀중한 것은 없다. 따라서 생명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불교에 있어서 생명에 대한 사유체계는 중생(衆生: 衆多한 생명체)이란 말에서도 보여지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다른 여러 생명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윤리를 논할 때 인간을 포함한 여러

2. 연기론적 측면의 불교적 생명관

부처님 재세 당시 인도 사상계는 영혼을 불멸의 실체로 생각한 정통 바라문교와 자이나교가 있었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정신/영혼은 물질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한 윤회론자들이 있었다. 붓다는 이러한 두 사상을 모두 부정하였다.³⁾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아이며, 무상이며 공이라고 하였다. 그

러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정신이나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얻기한 현상임을 강조하고, 상호의존적인 상관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명의 발생(生)과 그 존속이나 죽음의 문제를 ‘연기’와 ‘업’, ‘윤회’라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명을 이해하는 데 이런 부분들을 각각 분리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업과 윤회는 뒤의 불살생제와 생명윤리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업과 윤회는 윤리적 측면이 특히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선 연기론적 측면에서 불교적 생명관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무상한 생명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는 사대⁴⁾와 오온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대란 지·수·화·풍의 물질적 요소이며, 오온은 색온(물질)·수온(감수작용 즉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상온(상상)·행온(의도)·식온(인식작용)으로서 색온·물질적(육체적, 사대는 오온에 포함됨)요소이며, 수·상·행·식은 정신적 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는 존재 자체는 실체가 없고 영원하지도 않다. 이를 ‘제법무아’라고 한다. 여기서 ‘我’는 범어 ‘아트만(Atman)’을 음역한 것으로서 곧 ‘상일주재하고 불변하는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나와 모든 존재는 공간적으로 무아요, 시간적으로 무상이다. 이렇듯 일체의 존재가 인연에 의하여 생기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므로 모든 존재를 공이라고 한다. 연기는 곧 무아이고, 공이다.

다음은 『잡아함경』에 나오는 존재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생명의 상호의존적 관계인 연기의 이치를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⁶⁾

이 구절은 모든 존재는 그것을 형성시키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소멸하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시간과 공

1) 진교훈, <생명이란 무엇인가>(http://www.tojicul.or.kr Aeechnote), 2쪽에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은 하나의 연대공동체(Solidargemeinschaft)이며 하나의 운명공동체”라고 하였다. 이 의미는 바로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으로 자연을 떠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없고, 생명체들이 없는 자연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상호의존적 관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2) ① 생명을 해치는 병위로부터 멀리 벗어나라.(不殺生) ② 주지 않는 물건을 취하는 마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不偷盜) ③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불가사, 재가자는 不邪淫) ④ 바르지 못한 언어습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不妄語) ⑤ 이성을 흐리게 하는 도취물로부터 멀리 벗어나라.(不飮酒)

3) 이종국, 『불교적 입장에서 본 생명공학의 윤리 문제』, 『불교평론』, 제4호(서울: 불교시대사, 2000년, 가을), 41쪽.

4) 四大說은 존재의 물질적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이다.

5) 五蘊은 불교의 인간관으로, 인간은 오관(눈·귀·코·혀·몸)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요소(色)와 정신작용인 감수작용(受)·인식작용(想)·의지작용(行)·판단작용(識)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6) 『雜阿含經』, 卷第12 (大正藏 第2部), 65쪽 中段.

『緣起法者・所謂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諸緣無明行 乃至純大苦聖流 無明滅故行滅 乃至純大苦聖流』

간 속에서 서로 상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생명을 영혼과 육신으로 이해하려는 기존의 생명관이 생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연기법의 자각을 통해 생명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불교는 현실의 세계를 떠나 존재하는 초월적 실체나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원한 본체, 상주하는 개체적 자아, 불멸의 영혼, 창조자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는 연기법만이 있을 뿐이다.

2) 영원한 생명

붓다는 또한 불생불멸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 불생불멸이란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멸은 연기의 과정일 뿐 생겨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없다.

마치 낮과 밤이 바뀌면서 태양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은 늘 그대로인 것과 같다. 또 질량과 에너지가 보존되면서도 물질계의 그 높은 변화가 가능한 것은, 단지 나타나고 사라질 뿐 생이나 멸은 본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겨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앞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생멸이라고 부른다. 공이 색을 떠나 있지 않듯 불생불멸이 생멸을 떠나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멸하는 것이 연기로, 생멸하는 것이 공이다. 따라서 생멸하는 것이 곧 불생불멸이다.

마치 아침, 저녁에는 막대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정오가 되면 막대기의 그림자가 짧아지며 밤이 되면 그림자가 아예 사라지듯이, 생멸이라는 것은 연기라는 그물 속에서의 관계의 틀이 조금 변화되는 것뿐이다. 생멸은 오직 관계의 틀 안에서의 연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이를 불생불멸의 중도라고 한다.⁷⁾

다시 말해 무상한 생명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무상한 생명은 생멸하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불생불멸의 생명이다.

불교의 생명관을 연기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연기이기에 공이며, 공이기에 중도요, 중도이기 때문에 실상이다. 이 생명의 실상은 불생불멸이요, 무시무중이다.

온 우주의 원융하고 영원한 하나의 생명(온 생명) 속에서 인간과 세계는 마치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듯 다만 변화할 뿐 더하지도 보자라지도 않는 역여한 모습 그대로이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영원한 생명의 모습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제일의제, 진여, 법계, 불성, 여래장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와 온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하고, 생명은 서로 얽혀 한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불교의 생명관은 인간이 모든 생명에 대하여 이타적인 삶과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윤리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서구사회의 윤리체계에서는 도덕의 핵심이 정의지만 불교의 윤리체계에서는 자비가 핵심이다. 정의는 서구의 기계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인간이 개별적 존재라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익을 놓고 서로 대립한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연기설에 근거하여 나와 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라는 자타불이의 사상을 강조한다. 이 불이사상에 근거하여 서로 포용한다면 인간 상호간의, 인간과 자연간의 대립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전환은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반야·지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자비(사랑)를 통해 실현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인에 봉사하고 자연과 조화하는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구조 속에서 통일적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인간 중심의 윤리에서 보다 확장된 생태 중심적, 생명 중심적 윤리

체계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재가계와 출가계로 나눌 수 있다.

3. 불살생계와 불교의 생명윤리

1) 불교에서 계율의 의미

계율은 불교윤리를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계는 범어로 '실라'(Sīla : 尸羅)라고 하는데 금지의 뜻을 가졌으며 소극적으로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힘이고 적극적으로는 만선발생萬善發生의 근본이다.

- ① 불살생 · 불투도 · 불음행 · 불망어 · 불음주 - 소극적.
- ② 자비 · 복덕 · 청정 · 진실 · 지혜 - 적극적.

율은 '비나야'(Vinaya : 毘奈耶)인데 '조치調治한다', '조복調伏한다'는 뜻이다. 몸과 입과 뜻의 세 가지 업을 조절해서, 이룰데면 신어의의 행위가 자주 궤도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안된다!' 하고 잡아매는 것, '제지한다'는 뜻이 있다. 신 · 구의 2업은 외부적 행위로서 결과가 되고 의업은 내부적 행위로서 동기가 되는데, 율의 역할은 주로 외부적 행위인 신 · 구 2업을 정도로 이끈다.

이상으로 보면 계와 율은 양자의 구별이 있으나 흔히 계율을 붙여서 '경계(戒)하고 규율(律)한다'는 뜻으로 같이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같이 붙여 말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를 막는다는 데서 계라는 쪽의 뜻이 더 강하다.⁷⁾

- ① 재가계 : 삼귀의계 · 오계 · 팔관재계 · 보살계.
- ② 출가계 : 사미계 · 사미니계 · 석차미나니계 · 비구계 · 비구니계 · 보살계.

그러나 이 중 보살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법들은 불자 7衆⁸⁾으로 구분하여 재가, 출가에 있어서 자리적, 소승적인 반면, 보살계는 대승계로서 불자 7衆 전부를 거두어들이는 이타적 대승적 계법이다. 여기에는 보살의 10重 대제와 48경계經戒가 있다.

이 중 오계는 출가나 재가에 있어 가장 근본되는 계로서 10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10선은 신 · 구 · 의 3업이 주재한다. 특히 身 · 口業 가운데 탐 · 진 · 사견의 의업을 떠나는 것이 근본인데 오계는 각각 이것을 닦는 불자의 생활윤리가 된다.



7) 양행진 「과학으로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불교평론』 제11·12호 합본(서울 : 불교시대사, 2002년, 여름·가을) 참조.

8) 法興 편역, 『戒律綱要』(서울 : 우리출판사, 1994년), 5~10쪽 참조.

9) 7衆이란 비구(남성 출가자) · 비구니(여성 출가자) · 사미(예비 남성출가자) · 사미니(예비 여성출가자) · 석차미나니(비구니계를 받기 전 2년간의 사미니) · 우바세(재가남성 신도) · 우바세(재가여성 신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덕목으로 나타난 오계와 『법당경』의 10종 대계 중 불살생계에 한정하여 불교의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면 지비의 종자가 끊어져서 단명하는 과보를 받고, 도적질을 하면 복덕의 종자가 끊어져 기난한 과보를 받으며, 음행을 하면 청정한 종자가 끊어져서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는 과보를 받고, 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종자가 끊어져서 불신하는 과보를 받고, 술을 많이 마시던 지혜의 종자가 끊어져서 어리석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살아 있는 생명 또는 존재를 해치고 죽이는 것은 바로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불교윤리의 목표는 삼업의 정화이며, 특히 의업은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간주되어 가장 중요시된다. 불교의 윤리성은 필정도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필정도는 계·정·혜 삼학으로 구성된 바람직한 삶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계의 항목들-바른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정진은 불교윤리의 기초가 된다.

2) 오계-불살생계: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불교의 근본계율인 5계 중 제1계는 불살생계이다. 불교의 모든 계율 중 청정을 생명으로 삼는

스님들만이 지키는 구족계의 제1계만이 '음행하지 말라'는 불음계일 뿐, 나머지 재가계, 보살계, 사미계 등은 모두 불살생계를 제1계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계율에서는 불살생계를 첫머리에 둔 것일까? 그 까닭은 생명존중 정신과 자비심 그리고 평등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것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¹⁰⁾

여기서 살생이라는 것은 목숨을 끊는 것을 '살'이라 하고 유정을 '생'이라 한다. '사람마다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며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살기를 담하는데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¹¹⁾라고 하여 모든 유정물에 걸쳐 생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나타낸 것이다. ❶

〈 다음호에 계속 〉

10) "一日 不殺生, 上至諸佛聖人 師長父母 下至蜎飛蠃動 微細昆蟲 但有命者 不得殺殺 或自殺 或殺他殺 或見殺讓讓..." 全明星 編著, 『沙彌尼律儀』(서울: 喜蓮閣, 1977年), 23쪽.

11) 『大智度論』에서는 살생에 10가지 죄를 설하고 있는데 ❶ 마음에 항상 독을 품어서 세상에 갇히지 않고 ❷ 중생들이 미워하여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❸ 항상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일만을 생각하고 ❹ 중생들이 두려워하기를 호랑이나 뱀을 보듯이 하며 ❺ 잠잘 때 마음이 두렵고 깨어나서도 불안하다. ❻ 항상 악몽을 꾸고 질병이 많고 ❼ 목숨이 마칠 때 놀랍고 두려워하여 악하게 죽으며 ❽ 단정한 업의 인연을 심고 ❾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칠 때 지옥에 떨어지며 ❿ 만약 후세 사람이 떨어지라도 항상 단명한 과보를 받는다고 하였다.

어떤 바람에도

초발심의 빛이

꺼지지 않기를...

글 그레 지엄 / 사교과



『禪家龜鑑』을 통해 본 신수와 혜능의 계승

혜능 / 사집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선가귀감
3. 신수대사와 6조 혜능의 오도 계승
 - 1) 신수대사의 계승
 - 2) 6조 혜능의 계승
4. 선가귀감을 통해 본 신수대사 계승
 - 점수의 측면
5. 선가귀감을 통해 본 6조 혜능 계승
 - 돈오의 측면
6.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불교는 이고독락離苦得樂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출가자들은 대자유와 행복을 위해 대부분 출가한다. 이 길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법인三法印·사성제四聖諦·팔정도八正道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성향과 근기가 다름을 아시고 8만 4천 가지 법문을 설하셨다. 따라서 출가 수행자들은 참선, 간경, 염불, 주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잡아 수행을 한다.

그렇다면 출가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마치 여행길에 올랐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허매다 잘 짜놓은 지도를 만난 것처럼 구도의 여행길에 여기 『선가귀감』이라는 빛나는 지도가 있다.

『선가귀감』은 서산 대사가 선종과 교종으로 대립하던 당시 불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술한 선禪·교敎 사상의 종합개론서이다.

『선가귀감』은 비록 참선 수행자를 중심으로 수행상의 여러 가지 조언과 경책을 하고 있지만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학을 배우는 학인들과 자심自心을 깨닫고자 하는 모든 수행자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바른 지혜의 길을 열어 보여 주는 좋은 거울이자 지침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선·교·돈오·점수'는 초학자들에게는 아직 낯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방향이 잘 잡히지 않는다.

본교에서는 선가귀감이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선가귀감을 바탕으로 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되는 '신수와 혜능의 계승'을 비교해 보며, '선·교·돈오·점수' 양 날개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선가귀감

『선가귀감』은 서산 대사에서 경론과 조사어록

등 50여 권의 책을 열람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발췌해서 가르쳤던 것이다. 처음에는 원문만 기록해 두었다가 제자들의 청에 의해 알기 쉽게 주해(注解)를 붙이고 또 송頌과 평석(評釋)을 붙여 이루어진 책이다.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선을 표방하여 『선가귀감』이라 제목 붙였으나 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간경, 염불, 주력 등 불교의 수행 방법을 종합적으로 설해 놓았다. 말하자면 불교 수행의 종합개론서이다. 선가란 선의 모든 종파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고 귀감이란 거울이 되는 본보기라는 뜻이다.¹⁾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教是佛語).”

이와 같이 선교가 둘이 아님을 밝히면서도 먼저 깨달음을 주장하여 선을 우위에 두고 있다. 이것은 또한 불교의 기본적인 구조다. 그리고 선가에서 흔히 무시해 버리는 정도사상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²⁾

그러므로 이 책은 선가에서만 아니라 보편적인 불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한 요소를, 간결한 말 속에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3. 신수대사와 6조 해능의 오도 계송³⁾

1) 신수대사의 계송

5조 홍인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늘 생사(生死)가 중대하다고 알렸다. 자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 하고는 구원은 없다! 너희들은 이제 각자 돌아가서 자신의 본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계송 하나씩을 지어내라. 만약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나타나면 6대 조사로 삼아 대대로 전해진 가사를 물려주마.”

당시 50대 중반의 나이로 대중들을 이끌고 있던 신수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직 자신의 본성에 대한 분명한 지각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열세 번을 주저한 끝에 그는 계송 하나를 적어 복도 벽에 붙여놓았다.

身是菩提樹 몸은 깨달음의 나무
心如明鏡臺 마음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
時時勤拂拭 늘 깨끗이 털고 닦아서
勿使惹塵埃 먼지에 더럽히지 않도록 하리.

2) 6조 해능의 계송

해능도 벽에 붙은 이 시를 들었다. 그는 신수가 선의 핵심을 정약하지 못한 것을 알았다. 해능은 읽고 쓸 줄 몰랐기에 한 동자를 앞세워 그 옆에 자신의 시를 받아 적게 했다.⁴⁾

菩提本無樹 깨달음에는 본디 나무라고는 없다.
明鏡亦非臺 밝은 거울 역시 받침대가 없다.
本來無一物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何處惹塵埃 어느 곳에 먼지나 타끌이 일어나랴.

1) 지안, 『마음속 부처 찾기』, 조계종출판사, 2007, p.336

2) 법정, 『깨달음의 거울』, 문일출판사, 1992, p.7

3) 광덕 역주, 『육조단경』, 불광출판사, 1975, 『육조단경』에 신수 대사와 6조 해능의 계송이 나와 있다. 6조 해능은 이 계송을 통해 5조 홍인에게 인가를 받는다.

4) 광덕 역주, 『육조단경』, 불광출판사, 1975, p.76

4. 선가귀감을 통해 본 신수 계승 - 점수적 측면

신수는 노장과 유학의 많은 책을 읽어서 학문에 밝았다. 신수는 출가를 한 연후 경전을 익혀서 삼장의 경율론을 공부해 마쳤다. 신수는 '늘 깨끗이 털고 닦아서(時時勤拂拭)' 밝은 거울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보듯 신수의 접근은 계율과 선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권한다.

점수란 오랜 시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선가귀감』에서는 선법 공부에 있어서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한다.

‘무릇 공안을 참구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되 닭이 알을 품듯, 고양이 쥐를 잡듯, 배고픈 이가 밥 생각하듯, 목마른 이가 물을 생각하듯, 젓먹이가 임마를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뚫어낼 때가 있으니라.’⁵⁾ 하며 화두를 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부는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것처럼 팽팽하거나 느슨함이 그 정도가 알맞아야 한다.’⁶⁾ 공부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음심을 끊지 못하고 선을 닦는 것은 모래를 써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살생하면서 선을 닦는 것은 귀를 막고 고향을 지른 것과 같고, 도적질하면서 선을 닦는 것은 새는 잔에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거짓말을 하면서 선을 닦는 것은 똥을 새겨서 향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 비록 지혜가 많더라도 모두 마군의 도를

이루고 마느니라.’⁷⁾ 하고 서산 대사는 계율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선가귀감』의 후반부 ‘음심을 끊지 못하고 선을 닦는 것은’부터 ‘도인은 질박하고 곧음으로 근본을 삼아야 한다.’⁸⁾ 까지 계율의 중요성, 공부 방법, 화두 드는 법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5. 선가귀감을 통해 본 혜능 계승 - 돈오적 측면

‘여기 한 물건이 있다’ 는 말로 『선가귀감』의 첫 구절이 시작된다. 한 물건이란 무엇인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옛 어른은 이렇게 말했다. 옛 부처님 나기 전에 의지한 동그라미 석기도 아직 모르는데 가섭이 어찌 전하랴?

이것이 한 물건의 나지도 않고 죽지도 없음이며, 이름 지을 길 없고 모양 그럴 수도 없는 까닭이다. 혜능의 계승처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本來無一物) 어느 곳에 먼지나 티끌이 일어나랴.(何處惹塵埃)’ 소소영영한 자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에 어찌 먼지가 짙 수 있을까?

혜능은 반야공 사상의 입장에서 마음은 공한데 어찌 티끌이 붙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깨달음도 공이고 마음도 공이다.

『선가귀감』에서 ‘선문에는 오직 견성법을 전한다.’⁹⁾ 라고 말하고 있다. 선문에서 말하는 견성법이란, 성품을 보는 것이다. 성품은 바로 본 마음이

5) 정해 휴정, 『釋家遺鑑』, 「한문전 7」, p.636 中

6) 위의 책, p.637 中, 「工夫~ 空則落無明」

7) 위의 책, p.639 中, 「帶纏纏縛~ 皆成虛道」

8) 위의 책, p.639 中, 「帶纏纏縛~ 道人」

9) 위의 책, p.636 上, 「禪門 惟傳見性法」

다. 본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다. 아니, 닦으려 해도 닦을 수 없다. 일찍이 오염된 적 없고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는 공한 자리이기 때문이다.¹⁰⁾

마음을 깨쳐 바로 불성을 보아 반야의 지혜가 무상하고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돈오다.

해능은 변방의 오랑캐인데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다고 한다. '경전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불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돈오선의 상징이 되었고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등 선의 표어가 되었다.

6. 나가는 말

『선가귀감』에서 '공부하는 이는 먼저 실다운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을 따르는 두 가지 뜻이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며, 돈오와 점수의 두 가지 문은 자기수행의 시직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야 한다. 그 뒤에는 교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현전일념으로 선지를 참구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출신활로出身活路이다.'¹¹⁾라고 하였다.

불도를 배우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는 선·교를 두루 섭렵하여 불변과 수연, 돈오와 점수의 법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난 다음 본분 공부, 곧 선법을 참구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한 말씀이다. 이렇듯 『선가귀감』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종은 돈오에 집중하고 있으며 티베트와 남방불교의 명상은 점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선가귀감』은 돈오와 점수를 함께 이야기한다.¹²⁾ 성품과 모양의 차원에 입각하여 이론바, 깨달음은 단학에 일되, 뒤음은 꾸준히 한다. 성품은 바로 보면 되지만, 마음과 몸은 여전히 닦아야 한다.

『선가귀감』을 배우기 전에는 '선·교, 돈오·점수'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선가귀감을 통해 신수와 해능의 계승을 비교하면서 돈오와 점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나를 포함한 보통의 사람들은 뭔가 존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신수 대사의 계승이 더 잘 와 닿을 수도 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우리는 그 마음을 거울처럼 닦고 닦으면 언젠가는 불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수행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다가 알음알이가 아닌 뭔가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해능의 계승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범경, 『깨달음의 거울』, 불입출판사, 1992
- 지만, 『마음속 부처 찾기』, 조계종출판사, 2007
- 철호,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 조계종출판사, 2010
- 광역 역주, 『육조단경』, 불광출판사, 1975
- 해운, 『생각 속의 선가귀감』, 문운, 불호 제104호, 2008
- 신지하, 『육조해능의 마음에 나타난 불성사상과 반야사상의 연구』, 2016
- 청허 류경, 『禪家龜鑑』, 『한불전 7』,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10) 철호,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 조계종출판사, 2010년, p.37

11) 알의 책, p.636 中, '學者~ 所謂出身活路', '출신활로'란 일체의 속박을 끊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자체무애한 경지를 말한다.

12) 철호, 『할!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일어났도다』, 조계종출판사, 2010년, p.5



기도는 영원한 나의 도반

— 제20회 모수 스님 탐방기 —

향광 / 대교파



출가 계기

제가 중2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로 꿈에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속가 언니 따라 도선사에 갔다가, 100일 기도를 시작했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좋은 데 간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100일 기도를 하러가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할 줄 알아야 해. 그것이 불심이야.”

그래서 그날로부터 법당청소를 도맡아 했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향초를 사르고 법당 예불 준비를 했어요. 불기도 남이 닦기 전에 미리 닦았고, 밤에는 물대 뜨거운 물을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아마 내 평생의 복은 그 때 다 지은 듯해요.

100일 기도가 다 될 무렵 가사와 발우를 받는 꿈을 꾸었어요. 그 때까지도 전 출가할 생각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어느 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청담 큰스님에 대한 부분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왜 내가 출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출가 후 15년간의 수좌 생활

그 당시 봉선사에는 홍법강원이 있어서 운허 큰스님과 쟁쟁한 학자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곳에서 출가를 하게 되었죠. 봉선사에서 정해 준 은사스님은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걸 모두 뒷바라지해 주실 수 있었지만, 정작 저는 선방에 가고 싶었어요.

저는 제 뜻대로 선방에 갔고 석남사에서 첫 철을 나고 어른스님 시봉하면서 11개월 장좌불와 용맹정진을 했죠. 그 다음 내원사에서 좋은 선배스님들과 함께 결사 정진했고, 그러한 신심으로 10년 넘게 계속 선방을 다녔어요.

그 사이 끊이지 않고 은사스님께 참회하러 찾아갔지만 항상 문전타대하셨어요. 후에 자재공덕회 요양원에 계셨는데 스님께서 위독하시다가에 찾아갔어요. 그 때 처음으로 은사스님께 참회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은사스님의 남은 삶을 시봉하면서 매듭은 잘 풀고 보내 드렸죠.

봉선사 최초

비구니 포교국장

비구니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봉선사 포교국장에 들어갔는데 소임을 맡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신도님들 가르쳐야 하니까. 불교입문을 시작으로 봉은사 자료, 큰결 자료, 포교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포교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였어요.

저는 포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강원 졸업할 때 노스님 안목은 미래를 보고 내 그릇을 미리 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 때는 참선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봉선사는 어릴 때부터 친정 같은 곳이고 또 선방에서 공부하다 왔기 때문에 어른스님들께서 다 지지해 주셨어요. 함부로 하지 못 했죠. 그 대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소임 놓을 때까지.

‘스님, 제가 부처님 밥값 하려면
얼마를 해 드려야 합니까?’

한때 공부를 함께 한 인연이 있는 진화 스님이 '대장경 연구소' 불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사업부에 자금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때 당시 불교계에는 대장경이 하루이침에 소전이



되면 흔적도 없어질 거라는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발상을 한 것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전산 등록하는 대장경 전산화였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대한 양의 한문을 입력한 사업이었죠. 당시 그 직업을 하는데, 국고지원이 27억, 화주가 50억 들어가는 대불사였지요. 50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님, 제가 부처님 밥값 했다고 하면 얼마를 해 드려야 합니까?’

제가 한 일은 전국의 훌륭한 스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몇 월 며칠 어느 스님과 만난다 하면, 저는 약속 잡은 날로부터 어디에 있는 날마다 기도를 농친 적이 없어요.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지 않는 이상, 아침에 못 하면 저녁에라도 하루 일과에 기도는 꼭 했죠. 그 때는 오로지 ‘스님을 만나서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부처님! 제게 주십시오!’ 그 기도였어요.

북전암 노스님을 찾아뵈었을 때예요. 노스님께서 첫마디에 ‘건강치 못 한 수좌가 이렇게 하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그래 잘했다. 누군기는 해야 했다.’ 하시면서 ‘내가 송담 큰스님을 소개해 주마.’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인천 용화선원에서 드디어 송담 스님을 뵈었지요. 그 때 법문 자리에서 이 대장경 불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큰스님 주변 노보살님들이 그 자리에서 보시한 금액이 3억이 되었죠. 용화선원에서 총 13억을 후원해주셨어요. 저는 부처님 밥값 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공덕으로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회향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보드가야에서 금강경 만독 기도

제작년에 인도 보드가야에 가서 금강경 만독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 곳에서 새벽 5시에 숙소에서 나와 대밭에 머물면서 오후 5시까지 종일 금강경 기도만 했답니다. 지금은 금강경을 끝까지 회향하면 좋겠다 싶어 금강경 사경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드가야에 가면 기도에 욕심이 생겨요. 2만 배를 하는데 명함도 못 내밀어. 전부 10만 배 하니까, 사실 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나의 화두를 가지고 해야 해요. 내 마음속의 기도는 내가 찾아야 하고 나 자신과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과의 규칙적인 수행에서 어느 날 내가 조금씩 변화하는 게 보이지요.

절도, 오계투지도, 독경도 자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던 기도가 나를 이끌어 가고 일깨워 주는 힘이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도 변하면 안 돼. 저는 공항에서도 108배 기도를 해본 적도 있어요. 공항에서 하룻밤 자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공항에서 포대 깔아놓고 108배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일과를 안 놓치기 위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강원 졸업 후 선방에 3년만 가라 번뇌에서 꼭 끌어당기는 것이 화두

운문사 학인 때, 초심 하나만 잘 해도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경전 공부도 열심히 했죠. 흥륜강사스님께서 기신론을 독정하면 저는 자원해서 기신론으로 도량석을 했어요.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하는 거야. 노는 일도, 율놀이도, 발일도 좋아서 열심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죠.

후배 학인스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앞으로 강원 졸업 후, 3년은 선방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상하고 앉았어도 화두를 가지고 있을 줄은 알잖아요. 그걸 안 하고 가면 아무리 전강 큰스님, 송담 스님 법문을 들어도 다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3년이 아마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가면서, 큰 자량이 될 겁니다. 정진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신도들한테도 당당해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해요. 우리는 깨닫기 위해 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버스 왔을 때, 기울 땐 기울어도 봐야 합니다.

화두는 나를 깨워주는 것이예요. 내가 앉아서, 이 몸뚱이라는 여기 앉았는데 망념은 절로 쫓아가잖아요? 신도님들도 염불하다가 오늘 저녁에 콩나물국 끓여야 하는데 하면 부엌에 가 있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럴 때 관세음보살 하면서 그 달아나는 것을 빨리 찾아오고, 우리 수행자는 앉아서 망념 부리는 것을 화두로 ‘이뤄꼬, 본래면목이 뭐지?’ 하는 거지요. 번뇌에서 꼭 끌어당기는 것이 화두예요.

대선배이신 묘수 스님은 자그마한 외모에 목소리, 눈빛 등 모든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삼보님께 예경하는데 그 중에서 승가 보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운문인 견기명상’에서 대선배 스님들을 뵈었을 때 웬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고 자부심이 느껴진 것처럼 오늘 저도 모르게 운문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롭습니다.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염려하시고 후배 학인스님들의 여법한 수행 자세를 세심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스님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야 물론 15년 선방 수좌생활과 기도지요!!!”

당돌한 저의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해주셨습니다. 그 강렬한 어운이 여전히 제 마음에 맴돕니다. ❷

내 마음의 빛을 찾아서

김성심 / 대구한외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지난 3월 노란 고깔모자를 쓴 수선화가 고개를 내밀 즈음 펼쳐는 자기계발서 『128분, 나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다. 영화의 스토리를 빌려 우리 내면을 되돌아보자는 명상 형식의 인문학 책이다.

영화를 다루고 있지만 본질은 자기성찰이다. 1년 반의 시간을 녹였다. 주변 동료 교수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책을 읽는다고 사서 고생하느냐며 편견을 준다. 덧붙여 교수들이 교재를 쓰면 천 권 찍는 데 1년이 걸린다고 하며 책이 나오기 전부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맞는 말이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책을 낸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쳐가 이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가슴 시린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쌍둥이로 태어났다. 한 날 한 시에 태어났지만 얼굴이 서로 달랐으니 이란성 쌍둥이다. 하지만 주변의 축복도 잠시, 나랑 함께 태어났던 쌍둥이 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천성 뇌성마비에 걸렸다. 얼굴과 왼손 부분만 겨우 움직이고 다른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일명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사회복지가 어두운 시절, 동생의 모든 수발은 병든 어머니와 철없는 쌍둥이 형인 나의 몫이었다. 어린 시절 필자의 기억은 동생의 대소변은 물론 세안과 목욕, 그리고 밥 먹는 것에서 심지어 몸을 돌리는 것까지 모든 수발을 다 들어준 기억밖에 없다. 그토록 잠이 많았던 필자지만 동생이 새벽녘에 나를 깨우며 소변이 마렵다고 모기같이 앵앵거리는 주눅 든 소리를 할 때면 그 잠 많은 소년은 온데간데없고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소변 통을 가져다 소리 없이 동생의 소변을 뒤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무슨 단단한 의지나 지극한 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다. 10살 남짓 어린 소년이 무슨 강철 같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겠나? 그저 어눌한 동생이 안쓰럽고 안타까워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동생이 힘들 거란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과 교감이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알았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정말 꿀떡궁합이었다. 하루 종일 함께 놀고, 하루 종일 조잘거렸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동생과 함께 노는 게 즐거웠고 행복했다. 어쩌면 일찍 이 세상을 떠나야했던 동생에게 그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동반자로 부처님께서 나를 지목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나고 보니 그 또한 운명이다. 동생은 지독한 불교신자였다. 시켜서가 아니다. 자발적이었다. TV에 목탁소리만 나면 나를 불러 손을 합장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TV 속 부처님을 향해 '관세음보살'을 낚은 소리로 읊조렸다.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그 모습은 어린 필자의 눈에 비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동생은 17년을 그렇게 저주받은 시지프스의 운명처럼 살았다. 하지만 단 하루도 자신을 비하하거나 슬픔에 빠져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먼저 웃어주었고, 자신보다 항상 나를 먼저 염려했다. 먹을 것을 챙겨 나를 주었고 과자도 항상 큰 걸 내게 양보했다. 소변과 대변을 뒤어주는 나에게 항상 "옹가야!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저주받은 몸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읽어주는 책을 함께 보며 한글을 깨우쳤고, 천자문을 다 익혔다.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신기할 정도였다. 영어 알파벳까지 다 익혀 영어까지 더듬거리며 읽었다. 지나보니 동생은 나에게 영원한 스승이었고 구루였다.

그렇게 동생은 17년을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다가 우리 곁을 떠났다. 갑자기 떠나는 것이 미안하고 안쓰러웠던지 일주일을 병원에서 깨어나 함께 보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동생 옷을 한 벌 사오셨다. 평생 형들이 입던 옷만 입혔던 게 밤에 걸린 모양이었다. 동생은 그 새 옷을 입고 손에는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고서 조용히 떠났다. 말도 없이.

동생이 떠나고 얼마 후 아버지께서 동생과 관련된 꿈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다. 동생은 부처님이 계신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이다. 동생이 죽던 하루 전 날 아버지 꿈에 천사 두 분이 하늘에서 큰 꽃가마를 가지고 동생을 데려가시겠다고 했단다. 아버지는 동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동생을 감추고 또 숨기셨는데 천사 두 분이 어느새 동생을 기미에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38년이 지났지만 어제의 기억처럼 생생하다.

누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바쳐본 적 있던가? 그렇게 해본 사람은 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자신을 불꽃같이 태우며 살아본 적 있던가?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해가 아침을 밝히는 게 일상이라면 사람은 세상을 밝히는 게 일상이다. 깊은 밤에도 소망의 나뭇가지를 뚫어 부지런히 달빛을 건져 올리는 한 그루 나무처럼, 겨울밤 속살거리는 갈바람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온 새끼 고양이의 감촉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내일의 나를 준비한다.

살아보니 그렇더라.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 그저 덜 아픈 사람이 조금 더 아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일 뿐……. 『128분, 나를 바꾸는 시간』은 바로 인간 내면의 숨겨진 상처 앎기와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다. 감동적인 영화 속의 스토리를 통해서 말이다. ◆



김성삼님은 대구한외대 교수, 인문학 상담심리 교수 창업 1호 마음연결 대표. 2016~2017년 전국 대학교수 온라인 강의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 '인기 어워드 상'을 수상했다. 경주의 포항의 지진 때 심리지원단을 이끌고 트라우마 심리 치료를 하면서 두 번이나 행인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전국 관공서, 공무원, 기업체에서 가장 모시고 강의 듣고 싶은 강사 0순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산인 줄도 모르면서

산인 줄도 모르면서 산을
반들고 있는 땅처럼
옥인 줄도 모르면서 옥을
품고 있는 돌처럼
이렇게 살 수 있어야
진짜 출가지

似地擎山, 不知山之峽
如石含玉, 不知玉之無瑕
若能如是, 是真出家

빈선보적 盤山寶積 (720-814 唐)

법정 스님 생전에 운문사에서 학인스님
들을 위해 하신 법문이 있어서 정리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맑고 향기로운
다량으로 맺도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한 은행나무, 소나무 아래에서 원願을 세우라

— 법정 스님 생전 운문사 법문 2 —

정리, 혜주/사집과



첫 마음의 간절한 원행願行

원들 세웠어요? 우리가 한평생 이 길을 가려면 굳은 확신을 지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가장 먼저 원을 세워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큰 원을 세워야 돼요. 시시콜콜한 원은 큰 원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원의 힘으로써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고 큰스님이 되고 그런 성자가 되는
거예요.

원력이 있으면, 그 원이 지극하면, 어떤 난관도 능히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원이 없으면 조
그만 어려움에도 다 좌절하고 말아요. 수행자로서 청정한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
서 원과 행이 일치돼야 제자리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원만 있고 행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하고 관
념적인 거예요. '원과 행' 이 일치돼야 해요.

그럼 행은 어디에 있는가. 순간순간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어떤 원을 세웠다면 순간순
간 그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 이에요. '원행' 이에요. 보현행원 법문이 바로 그런 게 아
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수행' 은 '修' 자 '行' 자는 '따르는 행'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떤 관념



적 인데 절려 있으면 하루하루 세월 다 지나간다고, 여기 들어와서 4년 훌쩍 그냥 지나가요.

원이 없는 사람은 저기 은행나무 아래서, 반송 아래서 새로운 원을 다잡하세요. 그 원을 나무가 보더라도 당당한 기상을 가진 수행자답게 살아야 돼요.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뭘 애긴지 알겠어요? 잠깐이라니까. 나 산문에 들어온 지 엿그제 같은데 5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내가 그동안 뭘 했지? 그냥 하는 것 없이 시주 발판 얻어먹었나?' 남의 시주 은혜만 많이 얻었지, 그것에 대한 보답은 백분의 일도 못 한 것 같아요. 한 세상 짐칸이라고. 그러니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알차게 보내지 않으면 늙어서 허망하게 돼요.

수행자의 법랍은 늘 깨어 있는 시간의 나이

수행자에게는 늙음이 없어요. 늘 그 자리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늙음이 있지만 수행자에게는 늙음이 비껴갑니다. 늘 깨어 있기 때문에 늙음이 해당이 안 돼. 세월이 비껴 간다고, 어떤 간절한 소망, 원과 행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이지 늘 살아 있는 존재에게는 세월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늘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집 나와서 첫 마음 이게 중요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세월이 붙지 않아요.

한 번은 어느 신도분이 연하장에다가 '스님, 세월이 비껴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 무서운 법문이에요. 세월에 원승하지 말고, 놀아나지 말고, 세월을 비껴 가라는 거예요. 때 묻지 팔라는 거예요. 세속의 흐름에 때 묻지 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수행자에게는 세월이 붙지 않는답니다. 육신의 나이는 가만 놔두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위 법랍이라는 것은 어디 안거 한 천 했다고 하나 둘 있는 형식일 뿐이에요. 진짜 법랍은 '수행자 속 깨어 있는 시간의 나이'예요. 사람들이 스님들 죽으면 세수 얼마, 법랍 얼마 하는데, 그건 거짓 법랍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깨어 있었는가. 그걸 통해서 법랍을 배길 수 있다고.

내가 어째서 출가를 했는가?

과연 내가 출가 수행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미본질적 세계에서 본질적인 세계로 뛰어넘는 것이 출가

이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가 있어요. 내가 50년 동안 뒤돌아보면, '장애물 경주를 용케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마다 장애가 생겨요. 장애를 안잡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생에서 미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해요. 장애를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면 어떤 연륜이 생깁니다. 안으로 배움이 맺어진다고.



살다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보기 싫은 놈이 한두 명은 다 있어요. 어떤 세상에나 서로 죽도 안 맞고, 자기 자신도 동시에 저쪽에서 보기 싫은 대상이라니까. 그런 곳에서 털털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생각부터 벗어나야 해. 그게 출가예요. 어디에 갇히면 출가가 아닙니다. 뭉뚱이만 집에서 빠져 나오는 게 출가가 아니라니까. 수시로 순간순간 비본질적인 세계에서 본질적인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출가예요.

그렇게 되면 밍고 고운 놈이 없어집니다. 범의 형제로서 고맙고 율타리가 되지. 혼자 수행은 없어요. 여러 도반과 스승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해서 서로가 탁마하면서 서로가 경책하면서 서로가 보살피고 거들면서 수행을 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특히 처음 절에 들어와서는 선배라든가 스승이라든가 도반들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 때 그 때 장애를 자기 평생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 눈 팔지 마세요. 수행자는 한 눈 팔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이 길에서 벗어난 줄 알면 바로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야 돼요. 무슨 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 원의 힘으로써 그걸 달고 일어서야 해요. 살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속적인 인연에 얽혀 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어요. ‘내가 어째서 출가를 했는가? 과연 내가 출가 수행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그런 얽힌 반연에서 놓여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 지속적인 쾌락을 찾고자 한다면 그건 출가 수행자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망 때문에 그런 데에 끌려가지고 나갔어요.

그것은 깨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극한 원이 없기 때문에, 중 고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일이에요. 일단 자기가 선택한 길,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제 발로 들어온 출가 수행자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삶을 완성해야 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굳건한 의지, 저기 은행나무 같은 당당한 기상을 지녀야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원이 지극해야 해요. 어려운 장애에 부딪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째서 출가를 했는가?’ 늘 그렇게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서 거듭거듭 거기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소욕지족하는 출가 수행자의 삶이 청정한 승가를 이룬다

또 출가 수행자는 ‘소욕지족 少欲知足’,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의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원칙이 없으면 흐트러져요. 먹는 일, 입는 일, 그 밖의 어떤 물건을 갖는 일에도 소욕지족의 거울에 비춰봐야 해요. 가진 것이 많으면, 생각이 흐트러져서 본래 생각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서는 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렇지 않고 시주들이 주는 대로 다 가지게 되면 그것에 매몰돼서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강원(山院)에 있을 때부터 자기가 가져야 될 것, 갖지 않아야 될 것을 생각하세요. 이 도량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해인사에 있을 때 50년 대 중반이니까 1956년 12월부터 내가 거기서 살았는데 여러 분들이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그때 늘 배가 고팠어요.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먹고, 반찬이 어찌나 짜던지 돌아가신 총무 스님이 감장할 때마다 소금을 더 넣으라는 거예요. 반찬이 없으니 조금씩 먹게 하려는 소임자의 생각이죠. 하여튼 그 때 못 먹었어. 그 때 폐를 앓았었나봐. 너무 기운 없고 맥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이 나고 그러더라고.

그때 진도에서 신도들이 대중공양을 와요. 대중공양이라는 게 찰밥하고 미역국하고 당면, 이거예요. 요즘처럼 과일 망고, 바나나 그런 것 전혀 없고 이름도 생도 모를 데고.

내 방이 전망은 좋은데 번스가 가까워요. 대중공양이 들어오면 요란하게 달려가. 안 먹던 것을 잔뜩 먹어 놓으니깐 어떻게 소화를 해. 다 보내 버리는 거지. 욕심이라니까. 자기 먹을 만큼 소화할 만큼만 먹어요.

모든 지식과 정보도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수행자로서 필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버려야 됩니다. 나 같은 경우는 출판사, 신문사에서 많은 책을 보내와요, 그 책을 어떻게 내가 다 봐,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보내요, 먼 길을 가려면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내가 중 노릇을 하면서 제일 귀찮은 것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철 따라서 옷가지를 챙기는 것이예요. 아주 귀찮아요.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심패 옷, 겨울에는 누비 옷을 찾아야 합니다. 옛날 수행자들은 누더기 한 벌로써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지낼 수 없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것, 우리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나는 내 마음이 흐트러질 때, 물건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본래무일물 本來無一物”이라는 법문이 떠오릅니다. 육조 대사와 모든 선사들이 “본래무일물”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뭘 가져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또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서 곁에 찾아올 때, 땅 문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빈 몸으로 온다고. 또 살 만큼 살다가 인연이 다해서 갈 때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 해. 평생 자기가 익혔던 업만 가져가요. 모든 물건 관계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아무 것도 없다고. 수행자는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자비와 지혜가 하나 되는 것이 수행의 핵심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인정사정을 두지 마세요. 우리 처음 배운 초발심자경문에도 “인정이 능후하면 도심소(人情濃厚 道心疎)”라는 말씀이 있지요. 도심道心이 성글어진다는 거예요. 인정은 개인적인 거예요. 인정과 자비심은 다릅니다. 자비심은 보리심이에요. 인정사정 두지 말라는 말이 자비심조차 둥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청정한 본심이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으로 도의 덕을 닦아야 됩니다. 도의 덕이라는 것은 참선 잘한다고 해서, 경전 말이 읽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의 덕이 길러집니다. 자비심을 기른다는 것은 수행자의 본질적인 거예요. 자비심을 기르는 길, 보리심을 발하는 길. 그래서 발보리심 하라고 하잖아요. 보리심이나 자비심이라는 것은 따뜻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훈훈하게 만들고 이웃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게 수행자의 핵심입니다.

흔히 스 같은 짐승들 보면, 노스님들이 “발보리심 해라.” 그러거든. 스가 우리를 보면서 “너는?” 그러더라. 스가 “음배” 하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라. 자기가 크게 자책했다는 이런 일화가 옛날 스님들로부터 전해집니다. 보리심을 발했을 때, 이웃에게도 “보리심을 발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전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큰방 생활을 하는데, 보일러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랬는지 원래 그렇게 특수하게 놓아

서 그랬는지, 이중으로 돼 있어요. 찬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 곳,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데서 자게 돼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이 차디차기 때문에 따뜻한 데서 왔는데, 그 방에서 자면서, '이 방이 범문을 하는구나. 중생들 근기에 맞도록, 난방을 좋아하면 아랫목 냉방을 좋아하면 윗목에서 자라고 이렇게 선택의 매력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뭐든지 그냥 전성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깊이 생각해보면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범문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심이 우리의 본성이예요. 흔히 한국 불교에서는 지혜를 우선시하고 자비심을 소홀히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혜와 자비가 원래 둘이 아니라고, 일치해요. 청정한 한 마음에서 나온 가닥이에요. 굳이 차례를 얘기하라면, 자비심에서 지혜가 씩뚝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지극히 예마른 거예요.

한국불교는 깨달음을 우선시한다면서 깨달음의 행을 할 줄 모른다니까, 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깨달음의 행이 없이 정상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자비행을 통해 지혜의 씩이 터서 지혜와 자비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미득도 선타득도 自米得道 先他得道’ 자기는 깨닫지 못 하더라도 이웃을 먼저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성숙하지 못 했지만 이웃을 성숙하게 하겠다는 이런 염원이 그런 행을 통해서 스스로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수행의 길이에요.

정리하느라 범문을 듣는 내내, 스님께서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 마음을 뛰게 하셨습니다. 반송 아래에서 저는 지금 출가 수행자로서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반조하고 또 반조하며 부처님께 발원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 출가수행자로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한평생 이 길을 가며 만나게 될 장애 앞에서, 청정한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삶의 원칙을 갖고 늘 깨어 있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❷



이번 여름호 운문만행에서는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손길로 군장병들에게 불심을 일으키고 장병들의 의지처가 되어주는 군 포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신 덕현 스님의 26년 동안의 꾸준한 군 포교 활동 소식을 만나봅니다.



군 포교는 불교의 미래다

덕현 / 운문사승가대학 제20회 졸업



“스님,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용사들과 탁구 치고 있는 나에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한 용사가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하고 물으니 여자 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나보고 전화를 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집으로 와서 전화를 하겠조.

“저는 ○○용사가 있는 부대 법당 스님인데요, ○○용사가 친구와 전화가 안 되어 힘들어하는데 ○○용사가 군 생활 잘 할 수 있게 전화 통화하면 안 될까요?”

다음 일요일에, 얼굴에 함박웃음을 띄고 있는 ○○용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가 된 모양입니다. 다행입니다.

가끔 전 저녁 시간이면 용사들이 사는 생활관을 방문하여 탁구도칩니다. 그러면서 용사들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의 말도 하지요. 힘들지만 잘 견디고 군 생활 잘 하자고 손도 잡아주고 아프지 말고 건강히 보내자고 이야기 해줍니다. 부대에 법당이 있기에 가능한 저만의 홍보용 탁구 게임이기도 합니다.

군 법당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군 포교의 중요성 절감

1994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 곳으로 와서 작은 사찰을 마련하고 자리도 잡기 전에 포교의 길로 발을 들여놓은 곳이 바로 군 부대입니다. 어느 날 한 군인이 우리 절로 찾아와 군 법당에 와서 법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떨결에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차도 없이 걸어서 걸망 메고 처음으로 찾아간 곳이 군 부대였습니다.

기보니 일단 부대가 커서 놀랐고, 법당이 없어서 사병 식당 캐비닛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일요일에만 부처님을 꺼내 법회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그 후로 여기저기서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 때는 나도 가난한 터라 용사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줄 수 없었어요. 마침 어느 단체에서 중고차를 하나 사주셔서 일요일 아침 7시면 군 법당 세 곳을 다니며 법문을 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군 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시간에 주변을 살펴보면 대형버스, 봉고버스 모두 교회 차들만 보였어요. 일요일마다 교회는 저토록 전도를 하고 있었지요. 물론 그 주변에 사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찰도 있지만 일요 법회를 위해 다니는 사찰버스, 봉고버스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도 그런 상황은 여전히 똑 같습니다.

불교가 이렇게 포교에 소홀히 하면 언젠가는 문화재 불교, 박물관 불교밖에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무척게 들었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도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데 불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스님들은 다 어디에 계시는가? 어쩌면 그래서 더욱 군 포교를 지속적으로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를 기다리는 불자용사들을 위한 무한포교

그 후로 저의 개인사는 뒤로 하고 군 법당을 짓고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군 포교에 온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운문사에 찾아가 쌀을 얻어 떡도 해주고 사리암에서 사당을 얻어서 훈련장 위문도 다녔어요.

군목이 와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불자용사들은 우리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당 하나 초코파이 하나가 될 것 아닌 것 같아도 불자용사들은 큰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은 바로 무한포교의 시작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용사가 찾아와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시는데 스님께서 편지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그 용사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위한다기보다는 그 용사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서인 것이었죠.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 포교 양식은 스님 군승 불자의 따뜻한 관심

흔히들 군 포교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장에 돌고기는 가복한테 양식을 주지 않으면 죽은 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범희의 장에 스스로 모인 불자들의 양식은 부처님의 자비이고 부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스님, 군승,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이 양식이 되어야 풍성한 황금어장을 가꿀 수 있지요.

왜 군 포교가 중요한가?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도 이처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백 명 가운데 삼십 명만이라도 불자가 된다면 불교의 미래에 이런 큰 희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제 보면 군부대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법당에 용사들이 몰리고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용사들이 모입니다. 간식이 다른 날보다 조금 풍성하기 때문이죠. 법당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그야말로 자신과 인연이 맞는 종교를 탐색하고 의지처로 만들려고 하는 종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힘을 기울여 불자들을 배출해야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죠.

용사들과 함께 직접 손으로 만드는 연등 보시

저는 지금도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연등을 만듭니다. 겨울부터 일요일마다 법회가 끝난 후에 군중병 용사들과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연앞을 손 끝으로 말아서 연등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 일반 사찰이든 군 법당이든 손으로 연등을 만드는 곳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하지 않으면 요새 젊은 불자들은 모두 비닐 등이 진짜인 줄 알지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용사들과 연등 만들기 작업을 해요. 처음 한 번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색을 섞어가며 잘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기해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 덕분에 군 법당에는 언제나 정성이 들쭉 들어간 연등이 올려져 있습니다. 또 용사들에게 보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등 보시금도 받아요. 오천원~^^ 용사들에게 예뻐 준 거금입니다. 그 보시금은 간부들이 보관하였다가 여름에 쭈쭈바를 사서 먹어요.



요새는 군부대도 많이 바뀌어서 일과 후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얘기는 아~ 옛날이여. 토·일요일엔 온종일 휴대폰을 볼 수도 있지요. 법당에서 일요일 법회가 끝나고 간식을 먹을 때도 휴대폰을 봅니다. 저는 법당에서 휴대폰 보는 것은 금지했어요.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 나누고 간식을 먹게 했지요.

26년 동안 군 포교를 해 올 수 있었던 힘은 강원에서 다져진 것

이렇게 하여 저의 군 포교는 어느덧 2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부대에서 법회를 해 달라고 하였을 때는 좀 막막했어요. 수백 명 앞에서 법문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트에 법문 내용을 써서 모두 외워 비렸지요. 그렇게 법문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강원에서 했던 논강과 차례법문 덕분에 아니었나 싶어요. 또 도반 스님들과 말나루를 해오면서, 눈에 버 심기 하면서, 자연과 함께 배우면서, 마음을 넓히며 살아온 덕분에 그 힘으로 오늘까지 군 포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법회 때마다 찾아오는 수백 명의 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이자 보람입니다. 군 포교 활동이 가장 큰 불사가 되는 것이죠. 스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포교가 됩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 일요법회를 준비합니다.

무슨 간식을 준비할까?

법문의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

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

— 모든 생명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부처의 딸들 —

효근 / 운문사서점



제16차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참석차 운문사를 떠난 지 23시간 반 만에 호주의 블루 마운틴 리조트에 도착했다. 그리 생소하지 않은 환경에 심드렁해지는 내 마음에 '어머, 단풍!', 내가 지구 남반구에 와 있음을 실감했다. 불교 전통, 인종, 국가를 초월한 (성별을 제외한, 물론 모든 남성들의 참여도 적극 권장함) 대회답게 28개국에서 온 800여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7개국의 간단한 예경으로 시작되었다. 5개국이 탄아심경을 한국어로 합송하는 것을 들으며 대승에서의 탄아심경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호주 민속춤, 한국 힐링 합창단의 공연, 호주 인사들의 축하, 회장 텃진 팔모 스님의 환영사 등으로 개막식이 채워졌다.



이번 대회가 호주에서 열리게 된 연유에 대한 팔도 스님의 설명이 흥미로웠다. 호주는 서양 국가이면서도 많은 아시아계 인구 비율이 높고, 그들의 전통적인 관습과 신앙에 따라 불교사원을 건립하



사카디타 회장 원진 곁고 스님

고,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법을 알게 된 백인 사회 역시, 아시아의 다양한 불교 전통에 충실하게 센터와 사원을 지어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주는 불교의 전통적, 현대적 표현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불교의 새로운 지평'에 걸맞은 국가라는 것이었다.

사카디타의 일정은 논문 발표, 워크숍, 법문, 문화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날 일정에서 호주 불교의 도입 및 발전과정에 대한 논문 발표는 나에겐 완전히 새로운 정보로 입력되었다. 1850년 중국, 스리랑카, 일본 등의 이민자들에 의해 불교가 처음 호주에 소개되었는데, 본격적인 발전은 1970년 중반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이 철폐되면서 가능해졌다고 한다.

한 발표자는 호주불교의 특징을 여성 주도의 참여라고 말하며, 한 스승의 말을 인용했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다른 이를 보살피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경쟁과 권력 때문에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껍박 받던 불교를 지켜낸 여성들의 역할을 떠올리게 했다.



렉시 쏘 스님과 참가자 스님들



요근 스님



원진 팔모 스님과 입진 강주스님, 휴근 스님

첫 날 일정은 원진 팔모 스님의 법문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친절의 힘과 일상에서 끊임없이 친절을 반영해 내는 수행의 강조는 하루를 반조하기에 의미 있는 법문이었다.

남성 발표자의 참여는 이번 대회의 주목할 만한 점 중의 하나였다. 남향 비구 스님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 해결은 낙관적 희망의 전달이 아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불교의 통찰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적 지도자인 승려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스님의 발표는 최근

부쩍 나타해진 나의 수행과 현실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나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셋째 날, 유덕 스님의 논문발표를 대신하기 위해 단상에 선 나는 사카디타와의 인연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2004년 한국에서 열린 사카디타에 재가자로 참석했고, 온사 스님을 만나 1개월 17일 후 출가했다는 이야기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같은 세선에 참여한 7명의 발표와 질의 응답이 끝난 후, 원진 팔모 스님께서 발표자 모두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오셨다.

나를 보시자마자, "Are you a rapper?" 라고 묻는 원진 팔모 스님께,
나는 "Nooooooooo"라고 대답하며 피안대소했다.

유덕 스님의 논문은 4년간의 승가 공동체 생활을 자신의 정신적 성장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 교리, 명상, 실천행, 이 세 가지 요소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의 강원 시절을 돌이켜보면, 경전공부, 소임, 수행이 제각각 분리되다 보니 늘 피곤함에 허덕이고,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 정신적 성장이나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었다. 강원을 졸업하고 운문사에 다시 돌아와, 소임을 살면서, 그동안 태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상에서 깨어 있기가 조금 되는 듯한 나 자신을 보며, '착오를 거쳐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현재 상가에 몸담고 있는 대중스님들은 4년의 강원생활을 나와 같이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논문에서 제시한 수행방법을 잘 적용하여, 승가 공동체 생활이 자신의 수행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라춤, 힐링음악, 다도, 티베트 요가 등 다양한 워크샵이 마련되었는데, 그중 정관 스님의 김치 만들기는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국인들은 참여를 양보하라고 하실 만큼 외국스님과 재가자들 사이에서 김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더욱이 김치 만드는 과정 자체가 선 수행이라는 것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도록 지도해 주셨다.

불교와 관련된 민감한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라운드 테이블' 시간이 있었다. 쏘모 스님은 불교의 원리와 실천을 통한 긴장 완화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한 가지 더 팔목할 만한 것은 이스라엘의 한 여성이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자비 사상이 해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여성은 그 후, 히브리어로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을 진지하게 공부하며, 행복하게 수행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현재 그 인원이 13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제16회 사카디타의 마지막 밤은 슬라이드를 통해, 1987년 인도의 보드가야에서 시작한 소박한 모임이 현재는 여성 불자들을 위한 명실상부한 세계여성불자모임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었다. 팔모 스님께서 2021년 제17차 모임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할 것을 선언하시고, 국제 사카디타 깃발을 말레이시아 대표단에게 전달하면서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한 명(백시 쏘모 스님)의 서원이 셋이 되어 발전한 세계여성불자들의 모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찾아내 불교의 시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새로운 정보를 나누며, 모두가 부처임을 일깨우고,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부처의 딸들! 우리의 이런 열원의 파동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길..... 제16차 사카디타 세계여성불자모임의 공덕이 온 우주의 유정·무정에게 곁고루 나누어지기를 발원합니다. 



사카디타 김치 만들기



사카디타 다도 워크샵



①



②



③



④

⑤

⑥





4 5



6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부처 보기

편집부



- 1 청정 수행의 지계 - 하안거 포살
- 2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한 수행자
- 3 수련의 고요함으로.....
- 4 치문의 싱그러운, 풍디
- 5 수박 통자
- 6 치문반 자색-치문반이라 행복해요
- 7 운문사 법문과 3층 석탑
- 8 사시 예불 시작을 알리면서 텅 텅 텅
- 9 금강인사
- 10 물극탄을 꿈꾸며 - 화엄반 단오 산행
- 11 여름철 정풍료 큰 부전,
작은 부전 스님의 첫 날
- 12 한 송이 외꽃을 피우기 위해
- 13 내 안에 부처님 - 사교반 기도 수행

8 12



13



무상無常함에 대하여

도현상 / 대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매일 매순간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은 반드시 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부끄럽게도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도 한 달 상간으로 생각지도 않게, 할 일 다 해놓으시고 집자는 길에 물을 댄 노스님이 계시고, 오래도록 병석에 계시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신 어른도 계십니다.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아, 내 절을 떠나 눈 앞에 보이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그동안 잘 해 드리지 못했던 것을 죄송해하고 안타까워하며 부처님 전에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온통 무상으로 이루어진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無常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생이,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무상'을 바로 인식해야 만이 우리 모두 이 일장춘몽과 같은 삶, 이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은 생에서 벗어나서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문유란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일대사 인연'을 큰 화두로 출가하시고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시성정각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중생들이 이것을(깨치신 바) 알지 못하는 것을 가엾이 여겨

"참으로 기이하구나."라고 거듭 탄식하시고, 일대사 인연을 세 번 생각하시고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으나 갖가지 분별망상으로 인해서 생사윤회를 한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자리에서는 부처인테 인연에 의해 잠시 모인 사대(地·水·火·風)로 이루어진 허망한 육신의 나를 '진짜 나'라고 집착함으로써 매순간 번뇌를 단되고, 그 속에서 업을 짓고 돌고 도는 윤회의 생을 받는 중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識이 떠나면 이 육신은 그 어떤 기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라는 것도 '나'라고 집착하는 것에서 비롯하여 내가 지은 업에 따라 또 다른 몸을 받아 유전流轉할 뿐, 식의 성품 또한

공함을 알아야 합니다.

6근인 안·이·비·설·신·분별의식과 6경인 색·성·향·미·촉·법을 통해 6식이 끊임없이 작용하며, 나와 내 것이 생겨서 '나'와 '남'을 구분 짓고, '내 것'이라는 탐심, 이 탐욕의 반작용으로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진심, 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치심, 이 삼독심이 치성하여 간단斷斷 없는 무수한 번뇌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일어난 마음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지 내 마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내 것이라고 혹은 나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이 현실 세계의 '나', '주변의 사람', '환경'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꼭 집어서 무엇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의 제현, 나의 아뢰야식에 저장된 모든 종자가 조건(因)과 인연(緣)에 의해 발현된 영상인 것이지 실제(眞實)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본마음의 마땅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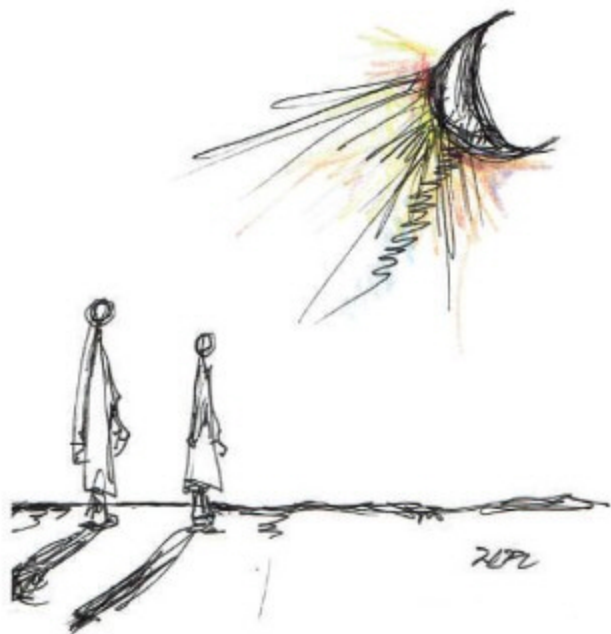
구름에 가린 달이 구름이 걷히고 나면 오롯이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나'라는 상(我相)의 혼과 같은 실체를 바로 알아차리면 오롯이 내 안의 청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행무상 諸行無常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떨어지나니
사생멸법 是生滅法	죽지 않고 사는 사람 그 누구이고
생멸멸이 生滅滅已	하염없는 근심 산을 오늘 넘어서
적멸위락 寂滅爲樂	한 생각 깨달으면 구름 간 자취로다. ❶



전도몽상顛倒夢想

선덕 / 시교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는 성철 큰스님의 어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이 어록을 ‘색안경을 끼고 모든 것들을 육근의 분별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위해서 각자의 망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보이라.’ 라는 말씀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들은 각자의 망념으로 본인들의 망념을 사실이라 착각하며 그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기의 경험과 그동안 본인이 알고 있었던 정보 즉 6식의 저장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망념을 우리들은 확실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 한 채 망념에 사로잡혀, 망념의 노예가 되어 고통과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망념이 사실이라면 왜 고통과 행복 둘로 나뉘까요.

한 예로 제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문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안개로 가득 차 그 웅장했던 산이 안개로 뒤덮여 마치 산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요. 어느 날 비가 오고 난 뒤 운문사를 둘러보는데 ‘이? 원래 이 자리에 산이 없었나?’ 라며 혼돈이 들어 옆에 있던 도반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여기 원래 산이 있었죠? 지금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거죠?”

2년 동안 매일 봐 왔던 산이고 풍경인데 안개로 인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산이 있었나 없었나 혼동을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봐 온 것들도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알고 있지 않았던 정보라면 얼마나 더욱더 자신의 생각들이 맞다고 착각하며 살까요?

옛날에는 홍익이 난치병이었고, 근현대에는 암이 난치병이었으며, 현재와 미래에는 정신병이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부처자리를 알지 못한 채 망념이라는 정신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이 사자성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망념이 본인이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의 노스님 그리고 비구니를 대표하는 선사 혜해 노스님께서는
“단고강산 유람할 제 삼신산이 어디메뇨?” 라는 민속타령을 하시면서
“이 자리가 삼신산이지! 이 도리를 바로 알아야 해” 라고 경책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성철 큰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와 같은 ‘직지直指’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 바로 혹은 육근과 육식의 분별없이 그대로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들은 늘 꿈을 꿈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꿈 즉 망념에서 벗어나 ‘직지’를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색안경 끼고 본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인용해 말해 보자면 우리들은 망념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으며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 색안경을 쓴 사람은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쓴 사람은 파란색으로만 보일 뿐이기에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마다의 색안경을 끼고서 산과 물을 보고 늘 ‘좋다 또는 싫다’라는 양면에 걸려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은 늘 끊임없이 망념이라는 분별심을 내며 윤희의 꿀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색안경을 벗고 보자.’라는 내용이 반야심경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견오온 개공도일체고액사리자……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

이렇듯 우리는 ‘직지’하지 않으면 어떠한 애씀의 수행을 한다고 해도 대지혜에서 나오는 대자유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직지를 하려면 ‘견도見道’ 즉 반야심경의 ‘조견照見’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세제불이 해탈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을 보고 침만 흘리는 것이지 허기진 배를 채우지는 못 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신심과 발심을 내어 ‘견도見道’하여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_0_ 

날마다 좋은 날

도현下/시미나파

한 번도 자랑일 수 없었던 고아라는 사실이 자랑이었다.
한 번도 풍요롭지 않던 것이 풍요였다.
한 번도 위로가 된 적이 없던 사실들이 모두 위로였다.
한 번도 감사일 수 없던 시간들이 감사였다.
미움이고 질시였던 것들이 우리의 무지개였다.
눈물이고 설움이었던 것들이 응석이고 희망이었다.
모두가 하나의 긍정이었다. 삶을 풀어내는 방법이고 청춘이었다.
『청춘의 위로와 긍정』 이상복

운문사 치문반 생활을 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진 강주 스님께서 오셔서 이 책을 주시며 꼭 읽으라고 하셨다. 스님으로서 위의를 갖추기 위한 습의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서 책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강주 스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셨는지 책을 읽지 못 하면 책 뒷면이나 돌아가는 말이라도 읽어보라는 간곡한 말씀에 책 뒷면 추천글을 읽어보았다.

강주스님의 따뜻한 마음이 소소하지만 청아하게 느껴졌고, 윗글 〈돌아가는 말〉을 접했을 때는 덕먹했다. 저자의 치열한 삶이 그대로 전해졌고, 치열하지만 그 삶을 극복한 저자의 삶이 궁극하고 대단하게 느껴져 책에 손이 절로 갔다.

강주스님을 엄마라 하며 응석부리는 어린애처럼 순수한 저자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마음 한 편은 아렸다. 세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10살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부모님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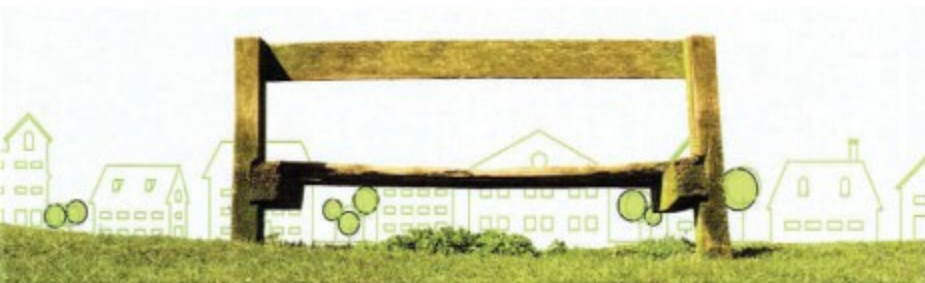
그렇지만 어려운 집 형편에 맞춰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담살이’도 하고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놓지 않아 대학교까지 주경야독하며 스스로 생계를 이이 자립적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었고, 교사가 되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를 매달 후원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교사 생활을 하며 한국 정서 행동장애와 유아 특수교육에 문제를 느껴 언어가 통하지

있는 미국 릭거스 대학까지 가서 불굴의 의지로 석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정서 행동장애와 유아 특수교육을 23년간 치열하게 연구하며 대학 강의를 해왔다.

미국 유학 가서도 화장실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학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였는데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같이 일하는 아들에게 인정을 받아 신뢰를 얻고 매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대학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해주며 대학 실험실에서 일 해주기를 권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렇게 저자는 어려운 현실에 불평하거나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비 10원이 모자라 걸으면서 부족한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모든 생활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등 저자 앞에 놓인 어떤 힘든 상황도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이었다.



급기야는 이런 설 새 없는 치열한 삶을 사느라 4기 말기암 진단을 받고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생 학문이었던 긍정행동학과 긍정적 행동치료가 4기 암을 통합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본인이 주치의가 되어 기적적으로 암을 극복

했을 때는,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저자의 말처럼 긍정적 삶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게 해주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다.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출가했는데 막상 출가하고 보니 승가에서 대중들과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가에서 정해 놓은 율을 지켜야 하고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화합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힘든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저건 또 왜 저렇게 하지?’ 하던 불평을 했는데 여름철이 되고 보니 모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날이 이어지는 습의는 우리들의 위의이다.

나를 향한 모든 경책은 감사한 가르침이다.

운문도량에서 만난 모든 이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율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다리이다.

구속이라 생각했던 생활들이 가장 큰 자유이다.

천년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운문사는 수행을 위한 보금자리이다. ❷

'Freedom is not free'

로운 / 대교과

대중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화엄반 로운입니다.

여름철 차례법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은사 스님께서 가장 좋은 법문은 가장 솔직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 스님들과 저의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출가자입니다. 각기 출가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자유"라는 단어는 출가 전 한 번씩 가슴에 품은 말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언제 들어도 멋지고 또 멋진 말입니다.

출가를 갈망하는 불타오르는 신심은 없었지만 숫타니파타의 이 구절은 출가를 결심하는 많은 이유 중에 저를 가장 강하게 이끄는 경구였습니다. 그러나 출가 후 보니 저의 이상과는 반대로 출가는 그냥 현실이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는 커녕 어른 스님들께서 나지막이 부르는 "로운아!" 한 마디에도 심장은 뱅글뱅글했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은 커녕 그물이 없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무소의 뿔은 커녕 뿔뿔도 내 의견은 낼 수도 없고, 어쩌다가 그 뿔뿔이라도 내놓으면 은사 스님의 경책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할 일은 쉴여만 가고, 잠시 눈을 감았을 뿐인데 새벽예를 시간이 되는 아주 신기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원을 가면 달라질 것이라는 저의 기대가 깨진 것은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들려올지 모르는 상반 스님의 "로운 스님" 이 한마디에 저의 심장은 두근두근, 절릴 곳은 더더욱 많아지고, 본사와는 또 다른 규칙과 계약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스님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선배 스님들의 말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나는 언제쯤 절릴 없는 대자유인의 모습을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이런 망상으로 저 자신



을 괴롭히면서도 이 길만이 제가 갈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었기에 묵묵히 지냈지만 가끔 가슴 속에서 뭔가 불명이 같은 것이 축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날은사 스님께서 제 책상에 이런 쪽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그냥 무시코 흘려 본 이 짧은 문장은 온종일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참 짧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찾아보니 이 말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 기념 공원 비문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며, 들도 보도 못했던 나라였고, 만나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싸운 공로를 치하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의 희생자와 출가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저에게 남기신 메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가는 '자유와 행복을 위한 여정, 자유를 향한 자유로운 날갯짓' 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종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고 출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충분히 매력 있는 말이고, 지금 이 순간도 저 또한 그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행복, 자아를 찾아가는 길에 수많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가자의 자유도 처음부터 얻어지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왜 생각 못 하고 "속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수행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을 굴레라고 생각했을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에 '入此門來 莫存知解. 이 문에 들어온 사람은 시비분별 알음알이를 넘겨두지 말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집 일주문을 넘은 계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알음알이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을 단단히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위해 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대자유 속에서 번뇌 없는 평온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출가자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인고의 시간이 아닌 그 동안의 알음알이를 벗어 버리고 출가자의 삶으로 들어서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자유를 찾는 여행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잘나잘나 나 자신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더운 여름, 대중 스님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❷



지금, 여기가 깨달음에 이르는 자신의 도량

— 『불교수행법 강의』를 읽고 —

법일 /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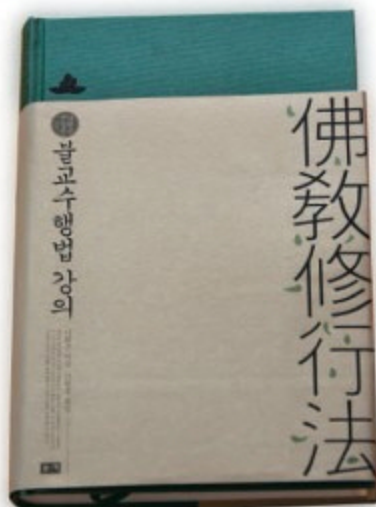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느라 제대로 살지 못 했습니다. 출가하여 삭발염의한 기쁨도 잠시, 또다시 출가자로서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히려 밖에 있을 때보다도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강원시절, 청풍표에서 금당으로 이사할 때쯤 『불교수행법 강의』라는 책을 대중공양 받았습니다. 이 책은 불교 수행이란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해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끝없이 윤회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근원인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도된 앞에서 벗어나서 직접 수행의 길을 걸어야만 함을 강조합니다.

바로 저의 아픈 곳에 적확히 들어맞는 처방전과 같은 책이었습니다.

저자인 남희근 선생의 이력은 화려합니다. 사서오경, 문학, 역사 등을 두루 섭렵한 탄탄한 인문학적 바탕에 유·불·도를 화통하는 실력과 게다가 직접 체득한 깊은 수행경지까지 갖추고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남희근 선생은 불교 공부를 하는 수행자라면 봐야 하는 경율론의 목록을 20여 가지 소개합니다. 다양한 경전과 논서 그리고 선아록을 넘나들며, 불교의 기본적인 개념어를 심도 있게 짚어가면서 진지하고 간절하게 수행의 지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가장 심오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교리의 이치에 밝지 못하면 正見이 바로 서지 않아서 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저자는 마치고 길에서 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것처럼 일침을 가합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왜 먼저 다른 사람의 成道를 돕지 않을까요?"

중생 제도를 바란다고 하지만 나만 제도되면 그만입니다.

빈내가 다짐없이 끊어지기를 바란다면 가장 좋은 것은 상대가 나를 도와 끊어주는 것입니다. 법문이 한량없이 배우기를 바란다면 나를 가르쳐 주지만 하던 좋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願을 일으켜 다른 이의 삶을 위해 행동하고, 도처에서 자신을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 과위를 중독하고자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고한 아집으로 뽄뽄 뚱쳐서, 제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주변과 세상을 둘러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자신이 만든 세상인데도 팔입니다. 三界虛僞 唯心所作이기에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해야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진리는 지금, 여기에 항상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팔이죠.

是法住法位하야 世間相常住라.

부처님께서 보리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세간의 모든 현상은 바로 보리의 현상이요, 모든 작용은 바로 보리의 작용입니다.

그야말로 佛身充滿於法界이므로 일체의 생활이 모두 佛事입니다. 一切唯心造이므로 문제는 자신의 業識이기에, 밝고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화하는 것이 수행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량에 모여서 대승경전을 대중과 함께 배울 수 있음은 너무도 희유한 일입니다. 게다가 회주스님을 모시고 열반경에 이어 법화경을 보고 있으니 참으로 매순간 환희심 나는 일입니다. 후학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운문사를 이렇게 훌륭한 가람으로 일구어 주신 어른스님들과 선배스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갖 탐진치에서 허우적대고 있던 제가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무엇인지,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성문들을 꾸짖으셨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문은 생사를 싫어해서 벗어나려고만 하지만(厭離生死), 보살은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不畏生死).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며, 중생을 여의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보살님들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나보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 본래 없는 我에 매몰되어 탐진치 고통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차근차근 배워가겠습니다. 사후서원이 가슴 절절히 울려 나오는 진정한 대승 발심이 될 때까지 대승경전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며 수행하고 싶습니다.

예불을 마친 후 앉아서 不二門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안행하시는 어른 스님들의 행렬을 보며, 더 이상 운문사와 둘이 아닌 어른 스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ॐ

‘입안의 도끼’를 거두어 들이는 방법

섬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문수등자 계송〉

요즘 뉴스에 정치가들의 막말 대행진은 그 정도를 넘어서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 대다수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한다. 그 사람의 인정을 가늠하게 하고 공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품위와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사람이 태울 만큼 배웠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복을 위해 앞장 서 일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인으로서의 염치도 다 내던지고 불나비처럼 덤벼드는 세태를 보노라면 중생교화와 제도를 서원하는 수행자로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대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왓타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고칼리까 비구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부처님, 사리뱃파와 목갈라나는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악한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고칼리까야, 사리뱃파와 목갈라나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들은 훌륭히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똑같이 부처님께 와서 사리뱃파와 목갈라나가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 후 얼마 되지 않아 고칼리까는 종기가 생겨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 병으로 죽고 말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가 생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말을 하여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찍는다.
 비난할 것은 칭찬하고, 칭찬할 것은 비난하니
 입으로 불운을 만들어 행복을 얻지 못 한다.
 타른 길을 간 훌륭한 이에게 증오를 품는다면
 그 불운은 무엇보다 클 것이다."

〈쌍옷파 니까야:6. 브라흐마 쌍옷파 1:10〉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살아온 여정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왔으며, 세세생생 이어져온 업의 얽힘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인 견해를 갖게 마련이다. 그러하니 타인과 부딪혔을 때 내 안에 쌓여져 온 온갖 것들이 얼굴을 통해, 눈·입·온몸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업이 되어 아뢰야식의 종자로 얽혀 들어가 윤회하는 또 하나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 고리를 끊어내 자유로운 해탈을 얻고자 하는 길이 불교에 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십수攝受하기 위하여 행하는 네 가지 기본행위가 있는데, 보시布施·애어愛語·이행利行·동사業同事攝이 그것이다.

그 중에 애어는 항상 부드러운 얼굴과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입술에 발린 말로써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악한 말을 떠나 진실되고 온화한 말을 해야만 애어로써 중생을 십수하여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거칠고 추악한 말, 차가운 말, 미웃고 조롱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다음 생에는 말이 유창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우리 예비 수행자가 몸담고 있는 강원생활도 마찬가지다. 세속의 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한 공간의 도반과 티격태격하고 당치도 않는 알음알이를 내어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며, 눈빛과 입으로 온갖 업을 순간순간 새로 짓는다.

다만 우리 수행자가 넘다른 점은 그것을 바로 돌이켜 '이뉘꼬' 하며 내 안을 반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구의 3업의 업장소멸을 위해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새로운 업이 우리를 넘보지 못 하게 항상 깨어 있음으로써 알아차리고자 한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한 길을 가고자 하는 수행자는 이렇게 '업 안의 도끼'를 거두어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공부하는 큰 방에서, 잠시 쉬는 지대방에서 밖을 향해 여는 입과 눈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 안으로 비추어 보자. 그 빛이 떨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삭발염의한 초심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헤제 스님 법문



▲ 하안거 포살



▲ 제16차 사카디타 대외



▲ 범공양



▲ 김성철 교수님 특강

운문소식

- 5월 30일 여름철 개화공사가 청풍로에서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법륜 스님을 비롯한 INEB(국제참여불교연대) 소속 스님들과의 차담이 청풍로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의 계단과 수계, 운문사 승가대학의 교육체제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 6월 6일 오후 1시 금강선원 혜거 스님의 하안거 법문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 6월 10일 단오산행을 다녀왔습니다. 화엄반은 재무스님과 함께 경주 남산을 답사하였고 치문, 사집, 사교는 화소대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6월 14일 오후 1시 대웅보전에서 전광 학장스님을 법사로 하안거 포살을 봉행하였습니다.
- 6월 15일 ~16일 경주 황룡사에서 개최된 제64차 사단법인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학부를 중심으로 화엄, 사교, 사집, 치문반 스님 35명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0일 치문반 자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키운 채소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대웅스님들께 공양한 치문반 스님들과 도감스님 고맙습니다. 저녁 예불 후에는 여름철 첫 자자가 청풍로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1일 ~7월 2일 호주 시드니 블루마운틴에서 '불교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6차 사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에 일진 강주스님과 호근 스님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2일 범공양이 청풍로에서 있었습니다.
- 6월 23일 교학부에서 대자원 법회에 10명이 다녀왔습니다.
- 6월 26일 ~28일 동국대 김성철 교수님의 '종론 특강' 12강이 선열당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눈빛을 빛내며 집중할 정도로 쉽고 재미있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 7월 5일 저녁예불 후 청풍로에서 학인스님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7월 26일 ~28일 제40회 어린이 여름불교학교가 '보리심, 우리가 one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만세루와 도량 곳곳에서 열렸고 170명의 어린이들이 수계를 받았습니다.
- 7월 29일 저녁예불 후 청풍로에서 자자 및 방화공사가 있습니다.
- 7월 30일 36일간의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와주신 분

• 권하음 • 장익수 • 정해옥 • 부유부동산 • 윤덕자 • 이명철
• 김성달 • 배정문 • 이종균 • 윤경숙 • 불도화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문』 발간에 도움을 주신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 - 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사천왕 석주

사천왕은

밖으로 천신의 위명을 나투시고

안으로 보살의 자비를 갖추어

마구너를 항복받고 불법을 외호하시네 ㉔



보물 제318호 통일신라 / 남방 증장천왕, 북방 다문천왕, 서방 광목천왕, 동방 지극천왕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화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시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시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좋다, 심다를 모두 버리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올바른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네

- 스타니 파타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 370-7139 / 중무소 (054) 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여름호·통권 제149호·2019년 7월 23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8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당성건(임희)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성경 / 편집위원·동심, 범전, 도현하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성경(원형齋行) / 심화·도현하, 진건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 426-3395